



보도	2024.1.8.(월) 조간	배포	2024.1.4.(목)
----	-----------------	----	--------------

담당부서	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	책임자	국장	김형순	(02-3145-7050)
		담당자	팀장	김남태	(02-3145-7060)
	금융투자검사1국 증권기획조정팀	책임자	국장	김진석	(02-3145-7010)
		담당자	수석	민중후	(02-3145-7013)
	분쟁조정3국 분쟁조정기획팀	책임자	국장	박현섭	(02-3145-5720)
		담당자	부국장	문상석	(02-3145-5712)
	자본시장감독국 파생거래감독팀	책임자	국장	서재완	(02-3145-7580)
		담당자	팀장	안태훈	(02-3145-7600)

홍콩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실시

- ◆ '23.11.15. 기준 금융권 홍콩 H지수 기초 ELS 총 판매잔액은 19.3조원, '24.1월부터 만기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 가시화
- ◆ '23.12월 종료된 주요 판매사 조사결과, 일부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 및 법규위반 소지(계약서류 미보관 등) 등 전반적인 판매 관리체계상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24.1.8. 업권별 최대 판매사를 시작으로 현장검사 실시
 - 업권별 최대 판매사(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민원조사도 동시 실시
- ◆ 현장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처리할 계획

1. 금융권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현황

- (판매 규모) '23.11.15. 금융권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19.3조원, 은행 15.9조원^{24.8만계좌} · 증권 3.4조원^{15.5만계좌}
 - (투자자별) 개인 17.7조원(91.4%), 법인 1.6조원(8.6%)
 - (투자수단별) 신탁(ELT) 15.4조원(79.5%), 펀드 등(ELF·ELS) 3.9조원(20.5%)
 - (상품유형별) 낙인형 10.8조원(55.8%), 노낙인형 8.5조원(44.2%)

H지수 ELS 판매 현황

(단위 : 조원, 만좌, %)

구 분	전 체				투자자별		투자 수단별		상품유형별	
	잔액	(비중)	계좌수	(비중)	개인	법인	신탁	펀드 등	낙인	노낙인
은행	15.9	(82.1)	24.8	(61.5)	14.8	1.1	15.3	0.5	7.8	8.0
증권	3.4	(17.9)	15.5	(38.5)	2.9	0.5	0.03	3.4	3.0	0.5
전 체	19.3	(100.0)	40.3	(100.0)	17.7	1.6	15.4	3.9	10.8	8.5

□ (고령투자자·판매채널)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8.6만 계좌(21.6%), 5.4조원(30.5%)

○ 은행은 오프라인[대면](90.5%), 증권사는 온라인[비대면](87.0%) 중심
(계좌수 기준)

※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8.6% (계좌수 기준)

개인투자자 연령·채널별 판매 현황

(단위 : 만좌, 조원, %)

구분	고령 투자자(65세 이상)				오프라인 판매				최초 투자자	
	계좌	(비중)	잔액	(비중)	계좌	(비중)	잔액	(비중)	계좌	(비중)
은행	6.1	(25.0)	4.6	(31.1)	22.1	(90.5)	14.0	(94.3)	2.2	(9.2)
증권	2.5	(16.2)	0.8	(27.2)	2.0	(13.0)	0.8	(27.9)	1.2	(7.7)
합계	8.6	(21.6)	5.4	(30.5)	24.1	(60.7)	14.8	(83.5)	3.4	(8.6)

□ (만기 현황) '21년 판매 상품의 조기상환 실패 등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79.6%인 15.4조원의 만기가 '24년중 도래

○ 분기별로는 '24.1분기 3.9조원(20.4%), '24.2분기 6.3조원(32.3%) 등으로 '24년 상반기에 10.2조원(52.7%)의 만기가 집중

분기별 만기도래금액 분포

(단위 : 조원, %)

구분	'24.1Q		2Q		3Q		4Q		'25년~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은행	3.4	(21.3)	5.6	(35.1)	2.8	(17.6)	1.6	(10.0)	2.5	(16.1)
증권	0.5	(16.4)	0.7	(19.3)	0.3	(8.8)	0.5	(15.4)	1.4	(40.1)
합계	3.9	(20.4)	6.3	(32.3)	3.1	(16.0)	2.1	(10.9)	3.9	(20.4)

II.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실시 계획

- (배 경) '24.1월부터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 가시화

* ['21.2월] 12,229pt → ['22.10월] 4,939pt(59.6% 급락) → ['23.12월말] 5,769pt

- 이에, 금감원은 '23.11~12월중 주요 12개 판매사*의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5개 은행 : 국민(현장), 신한(서면, 이하 同), 하나, 농협, SC제일
7개 증권사 : 한국투자(서면, 이하 同), 미래에셋, 삼성, KB, NH, 키움, 신한

- 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①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②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③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됨

- ① '21년초 홍콩증시 위기상황* 및 판매사 자체기준**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하여 판매

* '21.1.11. 트럼프 前 대통령의 행정명령(중국군 연계 중소기업 투자금지) 발효

** ELS 편입 주가지수의 변동성 증가(위험 증가)시 판매한도 감축

- ②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고객 수익률 항목 등) 배점에 포함시켜 ELS판매 확대를 유도

- ③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 주요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 법규위반 소지 등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확정하기 위해 은행 및 증권 권역을 아우르는 일제 현장검사 실시

- (검사 일정) '24.1.8.부터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순차 현장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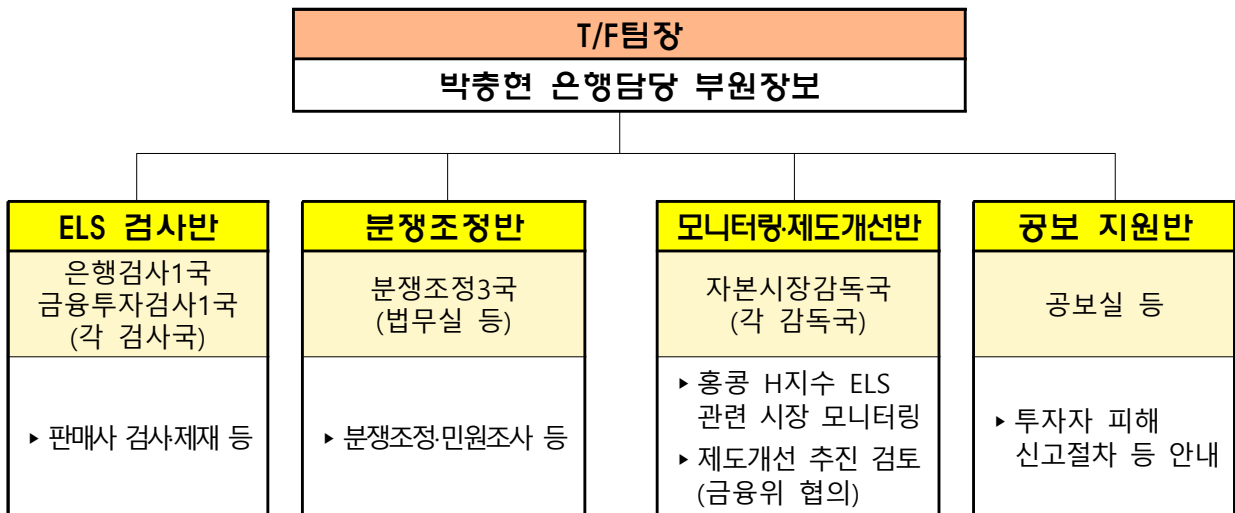
- 1.8.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월중 여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

- (민원조사 일정)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 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현장검사와 동시에 실시할 예정(1.8.~)

Ⅲ. 향후 처리방향

-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
 - 특히, 은행권은 '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ELS)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 * 「소비자 신뢰회복과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 결의」(은행연합회, '19.12월)
 - ** 파생상품 내재 등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 20% 초과
 -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
-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처리할 방침
 - * 법상 형식적 요건 준수 뿐 아니라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의 실질적 작동여부 등
- 이를 위해 금감원은 '23.12월 'H지수 ELS 대응 T/F(팀장 :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검사~분쟁조정~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

금감원 H지수 ELS 대응 T/F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